

釋尊의 그 린理想社會 (續)

江部 鴨村 述
梁 建 植 譯

四

지금 이에다가 四十八願을 剋記한은 紙而의關係로 할수업슨즉 그中에 뛰어난것으로 몇가지 摘錄하단다.

- 一 『設使 내가 부처가된다드래도 만일 내나라의 地獄, 餓鬼, 畜生의 세 惡趣가 잇스면 나는 맹서코 成佛을 아니하겠습니다』
 - 二 『設使 내가 부처가된다드래도 만일 내나라의사람과 神(天)이 壽命을 마치고나서 다시 惡趣로 태어나는일이잇다면 나는 맹서코 成佛을 아니하겠습니다』
 - 三 『設使 내가 부처가된다드래도 만일 내나라의 사람과 神이 죄다가 몸이 金色을가추지 아니한다면 나는 맹서코 成佛을 아니하겠습니다』
 - 四 『設使 내가 부처가된다드래도 만일 내나라의 사람과 神이 모양이 갖지안코 또 美醜가 잇다면 나는 맹서코 成佛을 아니하겠습니다』
- 그리고 第五願에는 一切衆生의宿命通(過去를 아는힘)의弘誓를 세우고 第六願에는 一切衆生의天眼通(自由로 모든것을 보는힘) 第七願에는 一切衆生의天耳通(안져서 모든音聲을 들어아는

佛), 第八願에는 一切衆生의他心通(自由로 남의 마음을 아는힘), 第九願에는 一切衆生의神足通(自由로 空間을 飛行하는힘)의弘誓를말하단다. 그리고

- 一〇 『設使 내가 부처가된다드래도 만일 내나라의 사람과 神이 妄想을 일으키어 身見한 貪計한다면 나는 맹서코 成佛을 아니하겠습니다』
- 一一 『設使 내가 부처가 된다드래도 만일 내나라의 사람과 神이 定聚에 들지안코 반듯이 滅度하게된다면 나는 맹서코 成佛을 아니하겠습니다』
- 一二 『設使 내가 부처가 된다드래도 十方의衆生이 至心으로 미더서 내나라에 나기를 願하야 十念만으로도 만일 나지를 못한다면 나는 맹서코 成佛을 아니하겠습니다』
- 一三 『設使 내가 부처가 된다드래도 만일 내나라의 사람과 神이 모두다 부처의 三十二相을 가추지 아니한다면 나는 맹서코 成佛을 아니하겠습니다』
- 一四 『設使 내가 부처가 된다드래도 만일 내나라의 菩薩이 一切智의演說을 못한다면 나는 맹서코 成佛을 아니하겠습니다』
- 一五 『設使 내가 부처가 된다드래도 내나라의 菩薩이 那羅延(天下力士)가온 金剛의 힘을잇지 못한다면 나는 맹서코 成佛을 아니하겠습니다』
- 一六 『設使 내가 부처가 된다드래도 地上으로부러 虛空까지의 宮殿, 樓臺, 호로는물, 茂盛한 나무等 國土의모든것이 죄다가 無量의樓臺와 百千種의芳香으로되야 그奇妙한은 人天에 뛰어난고 妙香은 널리 十方世界에 풍기어 그香을 맛는 菩薩은 모두 佛行을 닦게되

고 光耀至樂의 淨界에 逍遙케 하는 感이 있다. 다만 그러나 이를 紹介할 줄이 없음을 遺憾으로 생각한 다. 여러분은 압해말한 글과 및다음의 글로써 그余暇를 推測하기를 바란다.

「모든것은 빛나고 비취 極히 맑고 아름다웠다. 自然的인 微風이 스프를 날려나서 微動한다. 그바 람은 寒暑에 알파져서 다스리고 서늘하고 또 부드러운우며 느리지도 않고 急하지도 안하 모든보 때 그물과 보비나무에 그바람이 스치면 無量한 微妙한法音이 흘러나와 萬種의 溫雅한功德의香氣 가 풍긴다. 그소리를 뜻고 그香을 마르면 自然히 煩惱와 垢習에서 구원함을 맛고 바람이 그 음에 부딪치면 무엇이라고 말할수업는것을을 뜻진다. 또 바람이 꽃을 부러헤쳐서 모든國土에 그 특이 해치진꽃은 빛의種類를 말해서 어드면제 석기지어나하고 부드러운고 軟하고 光澤이있고 強 烈한香氣를 풍긴다. 말로 그우를 밟으면 내치나 빠졌다가 밟을 들면 다시 그前과 가리진다. 꽃 의불일이 꽃이나면 大地가 님을 버리어 그것을 차례로 집어삼키어 地上이 清淨하게 한닐과 리남기지아니한다. 그러나 때가되면 空前과가리 바람이 꽃을 大地에 불어꽃르린다. 이러케하기 를날로 여섯번한다. 또 모든보배의蓮華가 到處에 散발하여 鬚鬚히 보배의꽃에 百千億의 花瓣 이 갖추어있고 그花瓣에서 放射하는光明에는 無量種의 色彩가있다. 即후른빛에는 푸른光明이 있고 흰빛에는 白光明이잇스며 黑, 黃, 朱, 紫色에도 各各 그에 該當한光明이잇스며 그의燦爛 한光輝는 日月보다 明朗하다. 또鬚鬚히 雲속에서 三十六百千億의光明을 放射하고 나날치 그光明 속에서 三十六百千億의부처가 出現한다. 佛身은 紫金色으로 相好가 特히 殊勝하며 이諸佛이 또 各各 그음에서 百千의光明을 노아 널리 十方衆生을 爲하여 微妙한法을 說하여 無量衆生으로 하여금 佛의正道에 立케한다」

六

以上은 主로 理想國의外觀의設備에 關한叙述이지만은 同經의下卷에는 理想國의住民——阿彌陀

佛의本願力에 依하여 救濟가되어 西方淨土에 往生하게된사람들의 生活狀態心理狀態가 그리어있 다. 「阿彌陀佛이 여러聲聞과 菩薩의大衆에게 說法을하시는데 모든大衆을 七寶의講堂에 불러오 호고 널리各種의道를 說하시고 微妙한眞理를 말하여 들리신다. 그것을 뜻지고 歡喜하며 마음이 부드러운位 得道치안하는者는업다. 그때에 四方에서 自然히 바람이 일어나서 모든보배나무를 불어 다섯가지의音聲을 내리며 吹다지는無量한 微妙한뜻은 바람을 말하 大地一面에 遍滿한다」

또 이르기들 「그들은 國土의잇는바 모든것에 對하여 專有하는마음도업고 또執着하는생각도업 다 가나 돌아오나 나아가나 그치나 何等의介意함이업고 마음대로 自由이다. 원래 親疎의區別 을무지안는그들에게는저도업고 나도업스며 말해서 優劣을 다를必要도업고 是非를 말할必要도 업다. 가슴에 큰사랑의마음을 품어 모든세계를 爲하여 사랑을 爲하여 조조라고 願할뿐이다. 그마음은 부드러운 穩順하며 調和하고 練達하여 忿恨의感情이업다. 障礙를 헤치마음은 曠게 개 여 利他하는생각이 심이업스며 平等한마음, 高尚한마음, 기쁜마음 어드립지아니한마음은 眞理를 사담하고 求하며 眞正한마음에만 잠기어있다. 거기에는 煩惱란 그림자도업스며 苦惡의 世界에서 보는것가온 醜惡한생각은 當에도업다」이一文에 나하난 「그들은 國土의잇는바 모든것에 對하여 專 有하는마음도업고 또執着하는생각도업다」하는文句와 또 다음의文面에 보히는 「물건을 貯蓄치안 는것은 마치 自由로운小鳥와같다」하는것가온말로 勤히보면 釋迦의理想社會의經濟制度(만일 이 러한術語를 쓸수있다면) 共產主義도아니오 均等主義도아니오 純然한無所有主義이다. 釋迦의보는 바에 依하면 生類의모든苦惱와 罪惡의根元은 所有慾에있다. 이所有慾을 滅치는것에 眞實의自由 와 平安과 和樂이있다. 一切를 所有치안는것은 同時에 一切를 所有하는곳이다. 無所有의所有—— 이것이 釋迦의經濟生活의根本觀念이다. 理想國의住民은 이無所有에 住하는까닭에 「그들의智慧는 大海와같고 高요한마음은 崑山과같다 그智慧의빛이 맑고 밝은것은 日月의빛남보다도 뛰어나고그

요한마음속에 모든清淨한法을 斷지안코 가져어있다. 참으로 그들이 모든功德을 平等히 비추고 그리고 여러워지지안는것은 마치 희마라야山과 가르며 淨穢好惡에 거리가지안는것은 마치 大地와 가르며 모든迷妄의더러운것을 써서버리는것은 마치訪은물과가르며 一切煩惱의나무를 伐여버리는것은 마치 大火와가르며 모든世界를 遊歷하되 아무것도 막지못하는것은 마치 大風과가르며 一切그것에 執着치아니하는것은 마치 虚空과가르며 一切은세상에 墮를지안는것은 마치진흙속의蓮華와가르며 衆生을 迷의世界에서 대러내오는것은 마치큰수레와가르며 眞理를 불오지저 迷한者를 깨오게하는것은 마치 우뢰를 불오는黑雲과가르며 甘露의法을 내리며 衆生을 죽이는것은 마치大雨와가르며 惡魔와 異說者에게 動搖되지안는것은 마치 金剛山과가르며 모든善事에 있어서 第一人者인것은 마치 梵天王과가르며 一切를 頂히감추는것은 마치 尼拘類나무와가르며 容易하게 맛나기어려운것은 마치 優曇鉢華의꽃같다. 異端外道를 威伏하는것은 마치金翅鳥와가르며 功績을 貯蓄치안는것은 마치 自由로운小鳥와가르며 무엇이든지 지지를안는것은 큰 소와가르며 무엇이든지 服從케하는것은 큰코끼리와가르며 무엇이든지 두려워아니하는것은 마치獅子王과가르며 平等普通의大慈悲는 마치 虚空과가르다

七

이를 要컨대 釋迦의理想社會는 어디까지든지 超科學의超常識의으로 더구나 그것이 西方十萬億國土의存在하는곳에 더욱이 實在味를 稀薄케하는威이있다. 그러나 西方十萬億土라함은 經典慣用의象徵的筆法으로 西方이라고하는것을 人間最後의願欲, 窮極理想을 보인것이요 十萬億土라하는것은 離惡한現實世界를 超絶함이 遙遠하다는것을 나타낸것에 지내지안는것이다.

생각컨대 阿彌陀佛이나 그의本願이나 西方淨土나 다 釋迦의愛의所産이다. 우리는 大無量壽經

을 讀해마다 現實苦에 부딪고있는生類에 對한釋迦의사람이 얼마나 偉大하고 痛切하며 또 그 救濟의理想이 얼마나 高遠하며 徹底的인지를 생각하는同時에 이러한大思想을 내은 古代印度 民族의優越性에 驚歎을 禁치못하는바이다. (終)

釋者附記—本圖中引用大無量壽經의引文는 寶鏡廣備譯本을 參照하여 譯한것이요 佛者의지는 上篇에 있다. 下篇에 不得已 原文筆者의 意譯한日文의 依한가하여 文章의 明確을 缺한것이있으니 讀者는 이를諒하라.

朝鮮佛敎青年會에對하여

金 三 爲

우리는 우리佛敎의 世界的new光明을約束한朝鮮 地마은 青年그사람을사랑하지아니하고 青年이青年 佛敎青年이다. 文化가發達된곳에는 青年의모듬을 頂首任을失한것이다. 朝鮮佛敎가所謂維新이라는名 聲重히하고 文化가幼穉한곳에는 青年의모듬을 標下에서 한참소리쳐 棉花叢林를들어서 震激하여 待한다. 그럼으로文明한집안은 自由의모듬을사랑 하고 矛盾과暴力으로排除하는理性이있다. 文明이 興한그나라는 青年이모다健壯하고 文明이衰한그 나라는 青年이모다微弱하다 青年은그國家나 그 社會에 가장重鎮이되고棟樑이된다. 무엇보다도 青年은人間에서 唯一無二한寶物이고 迷津의棹筏이다. 하기에어는時代어는곳에 青年이업지는아니하

지마은 青年그사람을사랑하지아니하고 青年이青年 地마은 青年그사람을사랑하지아니하고 青年이青年 佛敎青年이다. 文化가發達된곳에는 青年의모듬을 頂首任을失한것이다. 朝鮮佛敎가所謂維新이라는名 聲重히하고 文化가幼穉한곳에는 青年의모듬을 標下에서 한참소리쳐 棉花叢林를들어서 震激하여 待한다. 그럼으로文明한집안은 自由의모듬을사랑 하고 矛盾과暴力으로排除하는理性이있다. 文明이 興한그나라는 青年이모다健壯하고 文明이衰한그 나라는 青年이모다微弱하다 青年은그國家나 그 社會에 가장重鎮이되고棟樑이된다. 무엇보다도 青年은人間에서 唯一無二한寶物이고 迷津의棹筏이다. 하기에어는時代어는곳에 青年이업지는아니하

지마은 青年그사람을사랑하지아니하고 青年이青年 佛敎青年이다. 文化가發達된곳에는 青年의모듬을 頂首任을失한것이다. 朝鮮佛敎가所謂維新이라는名 聲重히하고 文化가幼穉한곳에는 青年의모듬을 標下에서 한참소리쳐 棉花叢林를들어서 震激하여 待한다. 그럼으로文明한집안은 自由의모듬을사랑 하고 矛盾과暴力으로排除하는理性이있다. 文明이 興한그나라는 青年이모다健壯하고 文明이衰한그 나라는 青年이모다微弱하다 青年은그國家나 그 社會에 가장重鎮이되고棟樑이된다. 무엇보다도 青年은人間에서 唯一無二한寶物이고 迷津의棹筏이다. 하기에어는時代어는곳에 青年이업지는아니하

지마은 青年그사람을사랑하지아니하고 青年이青年 佛敎青年이다. 文化가發達된곳에는 青年의모듬을 頂首任을失한것이다. 朝鮮佛敎가所謂維新이라는名 聲重히하고 文化가幼穉한곳에는 青年의모듬을 標下에서 한참소리쳐 棉花叢林를들어서 震激하여 待한다. 그럼으로文明한집안은 自由의모듬을사랑 하고 矛盾과暴力으로排除하는理性이있다. 文明이 興한그나라는 青年이모다健壯하고 文明이衰한그 나라는 青年이모다微弱하다 青年은그國家나 그 社會에 가장重鎮이되고棟樑이된다. 무엇보다도 青年은人間에서 唯一無二한寶物이고 迷津의棹筏이다. 하기에어는時代어는곳에 青年이업지는아니하